

# 할머니, 따뜻하게 겨울 나세요!

### 능인복지관, 구룡마을에 연탄 4만2000장 배달 자원봉사자들 좁은 골목 한줄로 늘어서 '영차'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에도 빈곤층이 모여 사는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이 있다. 개포동 구룡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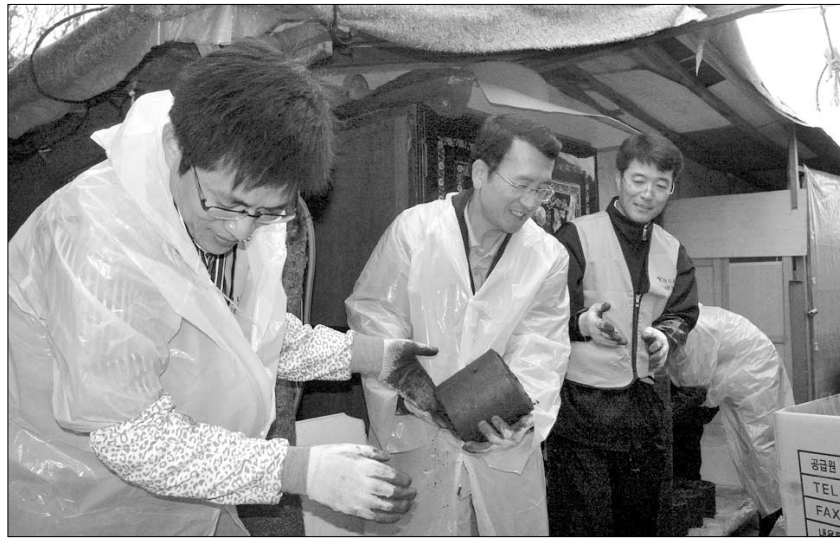
이곳에서 한겨울을 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이 연탄을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능인복지관은 하나은행, SK네트웍스, BC카드의 후원을 받아 12월 중순까지 210세대에 200장씩, 총 4만2천장의 연탄을 전달한다.

본격적인 연탄배달을 시작한 첫날인 12월 6일, 능인복지관 재가복지팀 이은옥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는 구룡마을 4단지를 방문해 1600장의 연탄을 날랐다. 이 복지사에 따르면, 연탄지원 사업은 '연탄 한 장 값보다 배달 인건비가 더 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다. 연탄 한 장 가격은 350원인

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대부분 연탄이나 산 같은 고지대에 위치한 탓에 지게를 지고 나르는 인건비까지 합치면 1~2000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복지사들이 전담까지 도맡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구룡마을 4단지도 하나같이 골목이 좁고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르막이 없는 골목은 개조한 리어카로 연탄을 옮겨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개조 리어카로도 갈 수 없게 되자 자원봉사자들은 일렬로 늘어선 연탄을 전달했다. 한 장이라도 깨질 세라 조심조심 옮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이마에 곧 땀방울이 맺혔다.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를 혼자 키우는 지순이 할머니(78)는 자원봉사자가 대문 앞에 쌓아놓은 200장의 연탄을 보고 모처럼 표정이 밝아진다. 심장병과 당뇨를 앓고 있어 유난히 추위를 더 타는 할머니는, 예전에는 가스



12월 6일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 실시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인 구룡마을 골목 구석구석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와 석유로 난방을 했지만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어 이후 마음 놓고 난방도 못했다. 지난겨울이 너무 추웠던 나머지 올해는 연탄을 연료로 하려 했지만 연탄보일러를 들여놓을 돈 40만원이 없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이 40만원을 빚어서 연탄보일러를 들여놓은 뒤 '연탄은 또 어찌하냐' 걱정했는데 능인복지관 덕분에 시름을 덜었다'며 기뻐했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 “불자들 활동 중심공간 될 것”

### 고려대 안산병원 법당 개원 本紙 보도후 '도움' 잇따라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자의료진 및 환자들을 위한 법당(사당)이 마련됐다. 고대의료원 불자회(회장 김우주·이하 고의불)는 12월 4일 안산병원 법당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안산병원불자회 지도도법사 보림, 안암병원불자회 지도도법사 지현,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차라 스님, 안산병원 박영철 병원장, 고의불 김우주 회장, 김명화 부회장, 안산병원불자회 성화정 지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산병원불자회 지도도법사 보림 스님(안산 보문선원 주지)은 “이제 불자들을 위한 법당을 만들고 약사 여래부처님을 모셨으니 부처님의 가피가 병원에 가득차길 바란다”며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자들이 병원법당을 자주 찾아 불자들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병원 법당은 고대의료원 산

하 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법당으로, 별관 지하1층에 8평 공간으로 마련됐다. 향후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본관으로 법당을 옮길 예정이다.

고의불은 안산병원 법당 개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구로병원과 안암병원에도 법당을 개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두 병원법당 개원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지현 스님은 “기사가 나가니 이후 <본지 605호 1면 기사 참조> 구로·안암병원에 모실 부처님이 마련되는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며 “그러나 아직 탁자나 냉장고 같은 소규모 물품보시와 후원이 필요하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011)305-6699

이은비 기자

##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 찾자

### 국회문화정책포럼 13일 전문가 토론회

주5일제 시행과 웰빙문화 확산이라는 국민여가문화 변화와 함께 시작된 템플스테이. 2002년 시작 당시 참가자는 1000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50개 사찰에서 5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특성화와 다양화, 고급 인력 및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아직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계진 의원과 국회문화정책포럼(대표 이계경)은 12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양홍석 문화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조석현 한국관광공사 전략상품개발팀장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여가문화 변화와 템플스테이 역할과 과제' '템플스테이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한류관광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제한다.

남동우 기자

### 어린이장작 등 제작교실

### 현대불교연수원서 23일 공개강좌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원장 이홍재)은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12월 25일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어린이장작 등 제작 체험교실'을 연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체험교실은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2007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8일부터 13일까지, 15일부터 19일까지, 22일부터 26일까지 각 1주일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수강료는 5만원이며, 12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공개강좌는 무료로 진행된다. (02)735-3034

남동우 기자

### 외국인 수행자 한국 체험 50여명 해인사 등 다녀가



해의 한국불교 수행자 한국문화 체험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합천 해인사, 김천 청암사 등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1일 서울 회계사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2일 한국민속촌 및 천안 독립기념관, 4일 여진미술관 등을 방문했다.

3일 조계종 종정 법친 스님을 친견한 자리에서 법친 스님은 “해인사에 수행하러 와도 좋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사진). 같은 날 오후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4일부터 7일까지 공주 무상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 뒤 체험단은 10일 출국했다.

체험에는 미국 흥법원장 대광, 무상사 조실 대봉, 흥공 수봉선원 대관 스님 등 10여개국 50여 외국인 불자들이 참가했다.

남동우 기자

### (사)로터스월드, KOICA 등록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사)로터스월드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로 12월 4일 등록됐다. 이로써 KOICA에 등록된 불교계 국제협력단체는 경부선 이웃돕는 사람들, 진각복지재단,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총 6개로 늘었다.

(사)로터스월드는 1년에 1회 KOICA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졌고, KOICA에서 비용을 부담해 해외 자원봉사자를 보내는 한국NGO봉사단을 해외사업장에 파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거나 재난지역 이동을 위한 전세기 지원, 국제구호·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로터스월드의 국제협력활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 부처님이 승용차를 탄 까닭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울산시 북구 매곡동 동대산 산불감시초소 뒤 숲에서 불상 3구가 발견됐다. 불상을 발견한 산불감시원이 현 대불교신문 울산 지사와 경찰 구청 등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끝내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 중구 성안동 백양사(주지 목산)에서 부처님들을 모시기로 했다. 백양사는 승용차로 불상을 이운해 법당에 모셨다.

서병수 울산지사장

### 캄보디아 우물 10곳 완공

지구촌공생회(대표 율주가) 10월 직장·공장새마을운동경북협의회와 건립 위탁협약을 맺은 캄보디아 씨앗지역 우물 10개소가 12월 8일 준공됐다.

이로써 쓰레스트마을, 노퍽마을 등 360가구 1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준공식은 새마을운동경북협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스트의 사람에서 진행했다.

박봉영 기자

### 10·27법난 조사 본격화 군과거사위, 내년 6월 발표

10·27법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이하 군과거사위원회)는 피해자 및 증인조사에 앞서 1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0·27법난의 진상조사를 위해 서류·자료 조사를 진행해 왔다.

10·27법난 진상규명 담당 위원인 공제욱 상지대 교수와 군과거사위원회 위원 법안 스님, 연구홍 조사과장 등은 지관 스님에게 “내년 3월까지 피해사자를 비롯해 증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6월 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불교계는 10·27법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할 것”이라며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 2006년도 화엄산림 법사일정표

음력	양력	요일	법사	법문하십시오
11/1	12/20	수	전계사스님(해남스님)	입재법문 헌당
2	21	목	수진스님	세주묘염품
3	22	금	인환스님	여래현상품
4	23	토	보각스님	보현삼매품/세계성취품
5	24	일	지안스님	화장세계품
6	25	월	현진스님	비로자나품
7	26	화	중선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8	27	수	향곡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정행품
9	28	목	자광스님	현수품/수미산정품/수미정상계찬품
10	29	금	법광스님	월하스님 기제 오전법문생략/심주품
11	30	토	각성스님	법행품/초발심공덕품/명법품
12	31	일	정우스님	승아미천공품/아미천공계찬품/심행품
13	1 / 1	월	우진스님	심무진장품
14	2	화	우진스님	승도술천공품/도술천공계찬품
15	3	수	법산스님	심회향품 제5까지
16	4	목	통광스님	심회향품 제6-10
17	5	금	약산스님	심지품
18	6	토	월운스님	심정품
19	7	일	덕민스님	심통품/심인품
20	8	월	성본스님	이승지품/수량품
21	9	화	진철스님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품
22	10	수	재문스님	여래심신상품/여래후수광명공덕품
23	11	목	원산스님	보현행품
24	12	금	종광스님	여래출현품
25	13	토	종범스님	벽안스님 기제 오전법문생략/이세간품
26	14	일	종범스님	입법계품(7) 후사유마까지
27	15	월	성림스님	입법계품(8-비목구산선인-31비산비연주야산)
28	16	화	지운스님	입법계품(32-보덕정광주야산-40구마하)
29	17	수	필파스님	입법계품(41마야마인-50유덕동녀-51미륵보살)
30	18	목	전계사스님	회향법문

입재: 2006년 12월 20일 수요일(음 11월 1일) 오전 10:00

회향: 2007년 1월 18일 목요일(음 11월 30일) 오전 10:00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

### 장소 통도사 설법전

회비 1개월 동참비: 100,000원(비표 배부)  
반산림: 50,000원 영가동참비: 1위당 10,000원

### 교통편 및 시간

- 부산지역: 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 본사차량 및 관광버스
- 울산지역: 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우정지하차도(07:40) → 구 고속터미널(07:50) → 공업R(08:00) → 무거R(08:10) → 통도사(관광버스)
- 대중교통: 부산노포동종합터미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문의 및 접수처 통도사 화엄전 (055)381-1288

### 귀의삼보하움고

적멸보궁 통도사에서는 팔만대장경 중에 가장 넓고 높으며 불가사의 한 법계진성의 화엄법문을 듣고자 청정일심으로 법석을 마련하여, 여러 고승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화엄산림 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화엄경과의 인연은 지혜와 복덕 그 광명의 문을 여는 힘이 될 것이며 또한 선망부모와 일체영가를 천도, 이고득락케 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연화장 세계의 불보살님께 귀의할 수 있는 장엄한 법석에 무무 동참하시어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복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불기 2550년 1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산용 지은 합장